



여성가족부



제10회
2016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다함께 그리는
희망
대한민국

▶ 일시 : 2016. 8. 29.(월) ~ 30.(화)

▶ 장소 : 호텔 인터불고 대구



주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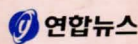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후원



연합뉴스 하나금융나눔재단

미국 생활 초기에 이민의 문화충격을 겪은 저는, 이후 국제결혼을 한 몇몇 여성들과 친목을 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군인들과 결혼한 한국 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폭력에 대한 항거 목적으로 대한부인회란 복지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우복 선 비영리 단체로 1,200명의 직원과 연간 3,200만 달러 예산을 다루며 11군데 군 소재지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대한부인회 설립과 미국의 이민정책

저는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을 공부하던 중 조지 미국 무역회사 코넬브라더스란 회사의 매니저인 프래드 워너 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강경한 반대와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평생 산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십여 년간 서울에서 두 딸 아이를 낳고, 한강의 맨션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산대 짝 목재회사를 하는 유대인 시댁에 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 Party가 아닌 타국인에 대한 우롱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두 아이들을 Day Care에 맡겨 두고 취직을 시도하였으나, 그조차 쉽지 않아 이웃 명대와 조라하고 녹슨 스토브가 있는 보잘 것 없는 모텔 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저는 문화충격과 외로움, 끔찍한 조그마한 초등학교에 보조교사 봉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정식교사가 되어 대학교와 중학교에서 30년간 교사를 하다가 2008년에 은퇴하였습니다.

● 미국 생활의 시작과 어려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단체인 대한부인회의 설립에 참여하고, 단체의 발전을 이끌어 온 সভ장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현지 정착 및 원활한 생활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시는 분들께 미국에서 다문화 가족 당사자로 살아온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당사자로 살아온 나의 이야기

여기서 잠깐 미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 드리자면, 70년대까지는 Melting Pot이란 이름으로 여러 인종들을 용광로 속에서 녹여 전형적인 백인 기독교 아메리칸을 만드는 정책을 운영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금은 Salad Bowl 정책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인종이 다 자기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맛을 내면서 멋지고 예쁜 색의 Salad Bowl을 만들어 조화하고 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파에 노력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하여 타코마 지역 내 4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과과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였고, 타코마 최초의 한국어 학교에서 교사,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인 2세들의 한글 교육 봉사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LA 한국어 진흥재단 서북미 이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 90여 개의 한국어 클래스 채택에 앞장서는 등 한국어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 전파에 노력하였습니다.

●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다문화권의 자식을 키우면서 저는 '너희들은 Korean Jewish American이다.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가치관의 혼돈이 올 수도 있을 테니 각 문화권의 좋은 가치는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좋은 것을 골라 내 것을 만드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대로의 특별한 가치를 소유한 Unique한 사람이 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요일이 되면 온 식구가 도서관 나들이를 하는 날로 정했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Family Time으로 정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일주동안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위해 일요일이면 유태 히브루 학교에 보내 그곳 아이들과 어울리며 소속감을 갖게 도왔습니다. 창의력과 정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였고, 꿈과 비전은 크게 가지되 직성과 Passion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집안의 모토는 '정직과 최선, 봉사'였습니다.

그렇게 키워 온 두 아이가 잘 자라주어 큰딸은 예일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하고 뉴욕 히브루 대학에서 7년 동안 랍비 목사 공부를 하여 지금은 뉴욕 맨하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최초의 랍비이자 영향력 있는 랍비 5인의 명단에 들었습니다. 둘째 딸은 스탠포드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에 비올라전공 후 UCLA에서 음악박사 과정을 전공 후 지금은 코번이란 전문 음악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은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외국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일과 봉사, 그리고 자녀교육 등 그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다문화가족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않았습니. 그렇기에 다문화가족을 응원하고 도움주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참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서 감사를 표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2016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다함께 그리는

희망
대한민국

